

접촉자·동선 숨긴 확진자 거짓진술이 집단감염 키웠다

광주 배드민턴 클럽발 확진자

허위진술에 10일 지난후 8명 발생

역학조사 공백 기간 다중시설 이용

37번 확진자도 대전방문 등 은폐

광주시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이 확진자들의 잇따른 거짓진술 탓에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서 매일 수많은 방역 공무원이 2주일 넘게 휴일은커녕 밤낮조차 잊은 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확진자들이 접촉자와 이동동선을 숨기면서 새로운 감염원을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역 현장에선 확진자 수 급증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지역사회에선 거짓 진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관련 피해액까지 모두 받아내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양성판정을 받은 광주 76번 확진자(금양 오피스텔 관련)와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접촉한 3명(149~151번)이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에도 157-159번이 추가됐다. 이들의 확진 시점 사이에는 최대 10일이란 간격이 있다.

76번 확진자는 지난 6월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A, B 배드민턴 클럽대회 경기에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 2시 현재 참석 선수와 가족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76번발 확진자수도 총 8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접촉자 97명은 검사 중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 76번 확진자가 6월 29일과 30일,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에도 전남대 스포츠센터에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주변 방역은 마쳤지만,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76번이 '스포츠센터 주변 벤치에만 있었다'는 식으로만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후 지난 8일 확진된 137번 확진자 동선에서 전남대 스포츠센터가 나오면서 감염병 관리지원단 주도로 심층 조사를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난 9일 76번확진자를 찾아냈다. 10일엔 76번 접촉자인 149-151번 확진자도 발견됐다.

이들 신규 확진자들은 역학조사 공백이 생긴 1주일 동안 사우나와 대학병원을 방문하거나 상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다녀간 병원 등은

물론 관내 17개 대학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도 모두 운영 중단 등 폐쇄조치 되는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n차 감염'도 현실화 되고 있다. 76번으로부터 감염된 149번과 접촉한 1명이 지난 11일 확진된 데 이어 151번 접촉자 2명도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76번 확진자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확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76번 확진자 사태를 계기로 확진자 동선 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지만,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의 수가 너무 많아 인력 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광주 37번 확진자도 역학조사 초기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7번은 광주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첫 확진 판정을 받은 34번과 한방병원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지만, 집단감염지가 된 금양오피스텔 방문과 대전방문 사실 등을 철저히 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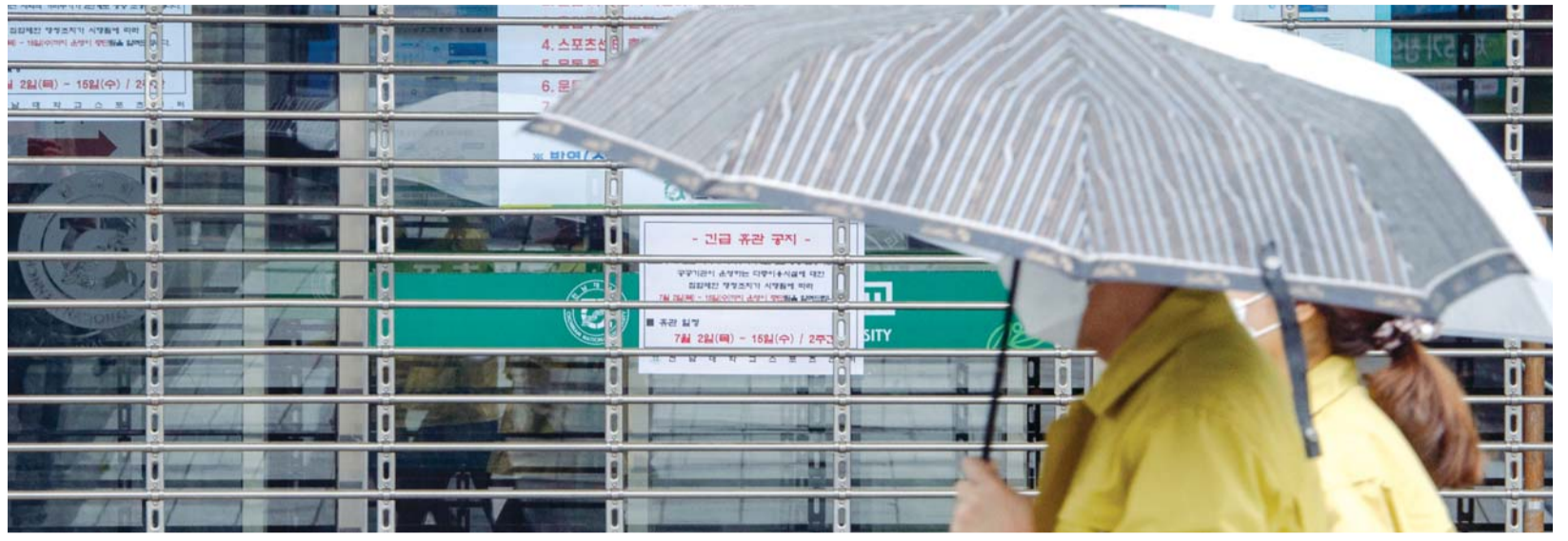
방역당국이 GPS 조사 등을 통해 37번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금양오피스텔 방문 등을 물었지만 "그냥 총장로를 걸었다", "지인과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금양오피스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추가 감염을 키웠다. 이는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후에도 37번은 대전지역 확진자가 광주에 있던 자신을 찾아온 사실까지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37번이 동선 등을 숨기는 사이, 34번(광주시), 45번(제주 여행), 48번(광주 사랑교회), 46번(오양원), 92번(일곡중앙교회) 등 집단 감염이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 서구보건소는 결국 지난 6일 광주 37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 후 37번 확진자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에 대한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본인 치료비는 물론 관련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관련한 거짓진술로 추가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들어가면 그 비용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일단 부담하고 추후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적극 협조하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라도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북구 배드민턴 클럽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12일 오전 배드민턴 클럽이 활동했던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가 굳게 문을 잠근 채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마스크 착용 여부가 코로나19 확진 희비 갈랐다

광주고시학원 다수의 확진자 나왔지만

같은 건물 다른 학원 방역수칙 지켜 0명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광주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가 대규모 확산을 가르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회, 병원, 학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잘 쓰는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감염률이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생, 직원, 환자가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

어린이집, 삼성화재 상무사옥, 해피병원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추가 확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반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사랑교회·일곡중앙교회·금양오피스텔 등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38명, 일곡중앙교회는 24명, 금양오피스텔은 30명까지 늘어났다. 특히 이날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고시학원의 경우가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다.

광주고시학원에서는 강사와 수강생 대부분이 강의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강의실 내 거리 두기, 에어컨 가동 시 창문 열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확진자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에어컨 옆에 선 채로 강의를 듣는 모습도 확인됐다.

4층(전체 6층)에 위치한 광주고시학원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같은 건물의 5층에 있는 다른 고시학원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학원에선 광주고시학원과 달리 마스크 쓰기 등 모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2일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 마련된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박원순 빈소 사흘째 조문 행렬...박용만·임종석 등 방문

광주YMCA 분향소 500여명 조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12일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명예지 석좌교수도 이날 정오께 조문을 마쳤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민주당 인제근 의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미래통합당 윤재욱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조문도 잇따랐다. 주한스페인대사·주한남아공대사 등 외국 사절들도 빈소를 방문했다.

이날 현재 빈소에는 전날 오후 늦게 도착한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가족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박 시장의 지인이나 가족의 조문만 이뤄지고 있으며, 취재진이나 일반 시민의 조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장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들도 조문할 수 있게 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 광주YMCA 무진관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12일 오후 4시까지 500여명의 조문객이 분향소를 찾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재만 상임대표는 "생전 고인과 광주와의 인연이 깊어 더욱 황망하고 비통하다"며 "박 시장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기록권을 버리고 참여연대 상근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활동 당시 광주 참여자치21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광주를 자주 방문해 강연을 펼쳤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5·18을 서울에 어떻게 널리 알릴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했다."고 돌아봤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박 시장은 5월 정신을 제안이나 이론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사회에 실천해 오셨다"면서 "그분이 계속 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우리 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너무나 뜻밖에 세상을 떠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정통 익스트림 오프로드
Dynamic Edition 출시

편의성과 정통 오프로드 록을 완성시켜주는 다이내믹 에디션 사양들

- 데코 이지 오픈 & 클로즈
- 2열 시트 언더 트레이
-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1,000대 특별 한정
풀옵선급 사양 기본장착 가성비 끝판왕
티볼리 Limited Edition 출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최애템 최고급 사양들

-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시스템 ADAS 9개
- Full LED 램프 (헤드램프/프로그래밍/레이어램프)
- 9인치 HD 내비게이션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권 (062) : 서 광 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광주운암 573-8900	광주중앙 529-0003
•전남권 (061)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 천 745-3666	여 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광 양 791-0071	나 주 331-1500
화 순 371-3555	장 흥 863-2600	나주시청 334-2727	영 암 473-3456	강 진 433-3100	해 남 537-3100	장 성 395-0007
담 양 383-5811	완 도 554-4545	영 광 353-9500	보 성 852-2892	서 광 양 761-8900	무 안 454-0099	고 흥 835-5050
진 도 542-5888	합 평 324-3800	여수구부 642-1400	구 례 782-9300	곡 성 362-4400		